SK에너지, 석탄연료 사용 문제없다!

울산환경단체, 고탄소 검은 성장 우려 ... 대기배출 상관관계 불명확

울산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와 일부 노동·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석유화학기업의 석탄연료 사용을 반대하고 나섰다.

울산환경단체는 “연료로 석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기업의 요구에 따라 울산시가 <연료정책검토 협의회>를 구성하는 등 연료정책을 바꾸려 하고 있다”며 “석탄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대치되는 에너지원”이라고 강조했다.

또 “정확한 사용량도 없고 대기배출물질과의 상관관계도 명확치 않은 기업의 자료만 믿고 석탄 사용을 허가 하면 <고탄소 검은 성장>을 초래할 것”이라고 지적했다.

이에 SK에너지 등 울산지역 에너지정책협의회는 “석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 여러 현장을 조사한 바 대기배출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”며 “석탄을 사용하면 벙커C유 비용의 40% 수준으로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어 시민단체의 지적은 억지이고 오류”라고 반박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8/12/17>